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

김 O 미 (인도 선교사)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미가 4장 2절)

주의 평안으로 존경하는 후원자님께 문안드립니다.

한국은 병오년의 봄을 맞아 여기저기서 울긋불긋한 색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는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통은 3월 초순에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데, 이곳은 2월 중순부터 기온이 35-36도로 상승하고, 강한 햇빛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이런 더위에도 인도인들의 마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속히 봉헌하고, 사순절에 들려주실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며, 부활절을 맞아 기쁨으로 예배하고픈 그 마음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흠양하여 주셨습니다.

1. 성전 봉헌 예배

2월, 인도에 미타칸다날라, 예람빨리, 그리고 빼따보다남 이렇게 3 교회가 봉헌예배를 드렸습니다.



(왼쪽부터 미타칸다날라 교회, 예람빨리 교회, 빼따보다남교회)

위의 세 교회는 교회 건물이 오래되어 무너지고 쓰러져 오랫동안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그에 따른 슬픔과 상실감이 크다고 했습니다. 성전 건축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 끝에 드디어 “새 성전 봉헌예배를 드리게 되어 엄청 엄청 엄청 기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세 교회의 성도들은 새 성전에서 맞이할 사순절과 부활절을 한껏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기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상실과 탄식의 기도를

기장의 교회들을 통해 들으시고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2. 앞으로 '성전 건축을 계속 돕는 꿈을 꾸는' 단기선교

2015년에 인도 교회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도와준 옥포교회가 10여 년이 지나 또 하나의 성전 건축을 후원하였습니다.



옥포교회는 130년이 된 역사적 교회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인도 교회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10명이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 이곳에 오셨습니다.



특히 성경책을 각 가정에 전달하고, 우리 형제, 자매를 만난 듯 함께 축복하며, 서로 열싸안고 기도하는 중에 주의 큰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언어와 얼굴은 다르지만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셔서 처음 본 사이였음에도 서로가 얼마나 기뻐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옥포교회는 두 개의 성전 건축 지원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분명 제3, 제4의 지원을 계속하실 것이란 믿음으로 복음전파 행진을 계속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주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3. CSI 초등학교

사람을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지만, 인도는 사람이 사람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고 때로는 사물과 같이 취급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낮은 계층의 아동들이 어떠한 것이란 말하지 않아도 상상이 됩니다. CSI 초등학교 학생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들은 교실에 책상과 걸상도 없이 바닥에 앉아서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처음으로 책·걸상이 생겼고, 화이트보드가 설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성교회를 통해 낮은 자와 궁핍한 자를 살피



높여 주셨습니다.

(CSI 초등학교 교실의 책·걸상 있기 전후의 모습)

4. 여자 전도사 양성 과정



10기 ‘여자 전도사 양성 과정’을 진행하면서 인간된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앞섰습니다. 이들을 위해 준비된 예산도 없이 그저 하는데까지 해 본다는 심정이었고, 어쩌면 올 해가 ‘여자 전도사’를 양성하는 마지막 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그저 두 손 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더니 주님은 제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너의 소망이 하나님에게서 남을 보여 주셨습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주께서 하십니다. ‘독일의 OO 한인교회 은혜 구역’의 가정들은 제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지만, 구역예배 헌금을 정성스럽게 모아 보내 주셨습니다. 또한 한국의 000 장로님 가정은 성전이나 다른 빌딩 건축 지원을 할 수도 있지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여자 전도사 양성 과정’을 섬겨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합당한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 여학생들의 아픔까지 헤아린 면 생리대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여성의 인권과 존엄성 회복, 성평등 향상을 다짐하는 날이지요. 그러나 ‘성평등’은 고사하고, ‘여아’라는 이유로, 생리를 한다는 것이 괴롭고 힘이 들며, 부모와 사회(학교나 교회)로부터 외면 당하는 여학생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들은 부모에게 당당히 생리가 시작되었다고, 생리대가 필요하다고 말을 못 하며, 가정 형편과 사회적 인식으로 마치 무슨 죄를 지은 양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 해마다 대천장로교회는 ‘면 생리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학생들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신들의 아픔까지 헤아려주시는다고 감동하고 또 감동하고 있습니다.



6. 자매결연 & 장학생 & 바자회

현재 26명의 대학생들이 신학교 또는 간호대학이나 교육대학 등에서 기장의 여러 교회나 개인으로부터 지원받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신학생으로 장학금 후원을 받아 공부한 목사들 11명은 ‘기장 장학회’를 결성하고, 후배들 2명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1 자매결연' 후원을 통해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중 4명이 올 4월에 졸업을 합니다. 이들은 얼굴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는 자신들에게 '기장 후원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하며, 기쁨으로 '장학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이들을 통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왼쪽부터 '1:1 자매 결연'의 대학 졸업자들과 바자회 모습)

또한 여러 기장 교회들이 보내 주신 물품으로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이 바자회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은 'CSI 학교 학생 식당'에 새 급식판을 선물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후원자님의 헌신과 섬김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존경하는 후원자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이 땅과 부족한 종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부족한 종이 이곳에서 영육이 기뻐하며 강건할 수 있도록
2. 구왈라군틀라 교회외 5개 교회가 지금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봉헌하고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의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해 주시길
3. CSI 학교 건물의 증축 공사가 원활히 시작되도록 (올 5월, 6월에 지방선거가 있어 행정이 답보 상태임) 기도해 주십시오.

2026년 3월 15일,
후원자님의 교회와 온 가정에 평안을 두 손 모아 기도 하며...